

## 5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 수산물 수입동향

◦ 2012년 3월 일본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6.4% 증가 ('11년 3월 수산물 수입액은 101,770,021천엔)

(단위: 천엔, %)

| 구 분   | '12년 3월 당월  |            | '12년 1~3월 누계 |            |
|-------|-------------|------------|--------------|------------|
|       | 금액          | 전년동기 대비(%) | 금액           | 전년동기 대비(%) |
| 수 산 물 | 118,493,862 | 16.4       | 349,320,007  | 14.8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엔, %)

| 품목                        | '12.1~3월    | '11.1~3월    | 전년<br>대비 | 1위    |            | 2위         |            | 3위    |            |
|---------------------------|-------------|-------------|----------|-------|------------|------------|------------|-------|------------|
|                           |             |             |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 수산물 전체                    | 349,320,007 | 304,344,240 | 14.8     | 중국    | 61,879,334 | 칠레         | 43,878,257 | 태국    | 28,407,663 |
| ◦가다랑어류<br>(신선,냉장,냉동)      | 1,594,977   | 782,489     | 103.8    | 인니    | 863,238    | 파푸아뉴기니     | 212,101    | 필리핀   | 201,585    |
| ◦참치류(신선,냉장,냉동)            | 49,979,513  | 45,986,432  | 8.7      | 대만    | 12,157,443 | 한국         | 5,617,986  | 몰타    | 3,730,136  |
| - 날개다랑어                   | 940,572     | 1,115,819   | △15.7    | 대만    | 462,608    | 바누아투       | 283,968    | 중국    | 55,470     |
| - 황다랑어                    | 8,319,861   | 7,099,617   | 17.2     | 대만    | 2,566,351  | 인니         | 658,786    | 한국    | 613,065    |
| - 참다랑어                    | 14,835,151  | 16,718,424  | △11.3    | 몰타    | 3,730,136  | 타이키        | 2,602,357  | 크로아티아 | 2,431,427  |
| - 눈다랑어                    | 18,740,866  | 14,938,345  | 25.5     | 대만    | 8,884,538  | 중국         | 1,881,793  | 인니    | 1,641,003  |
| - 남방다랑어                   | 1,117,013   | 628,704     | 77.7     | 한국    | 985,754    | 인니         | 83,524     | 뉴질랜드  | 31,400     |
| ◦청새치(황새치포함)<br>(신선,냉장,냉동) | 1,400,060   | 1,201,702   | 16.5     | 대만    | 471,582    | 인니         | 390,439    | 중국    | 110,584    |
| - 황새치                     | 836,066     | 832,272     | 0.5      | 대만    | 325,591    | 인니         | 143,870    | 중국    | 84,181     |
| ◦할 넙치                     | 613,647     | 807,897     | △24.0    | 한국    | 613,647    | -          | -          | -     | -          |
| ◦망어(신선,냉장,냉동)             | 1,648       | 84,018      | △98.0    | 한국    | 1,648      | -          | -          | -     | -          |
| ◦도미(신선,냉장,냉동)             | 31,917      | 28,688      | 11.3     | 아르헨티나 | 14,571     | 모로코        | 7,672      | 기니    | 6,351      |
| ◦삼치(신선,냉장,냉동)             | 799,427     | 928,936     | △13.9    | 한국    | 790,784    | 중국         | 5,455      | 피지    | 2,863      |
| ◦금눈돔(냉동)                  | 700,235     | 529,770     | 32.2     | 뉴질랜드  | 326,978    | 쿠웨이트(뉴질랜드) | 181,967    | 한국    | 128,219    |
| ◦복어(신선,냉장,냉동)             | 289,847     | 310,074     | △6.5     | 중국    | 274,704    | 한국         | 15,143     | -     | -          |
| ◦오징어(活,신선,냉장,냉동)          | 9,796,834   | 7,838,015   | 25.0     | 중국    | 2,850,060  | 태국         | 2,673,286  | 베트남   | 1,745,528  |
| - 몽고오징어                   | 3,191,127   | 2,210,577   | 44.4     | 태국    | 1,205,199  | 베트남        | 734,815    | 모로코   | 311,942    |
| - 오징어(몽고제외)               | 6,605,707   | 5,627,438   | 17.4     | 중국    | 2,850,060  | 태국         | 1,468,087  | 베트남   | 1,010,713  |
| ◦전복(活,신선,냉장,냉동)           | 1,236,074   | 1,035,246   | 19.4     | 한국    | 852,926    | 호주         | 181,019    | 칠레    | 81,250     |
| ◦굴(活,신선,냉장,냉동)            | 622,423     | 573,586     | 8.5      | 한국    | 596,315    | 미국         | 6,190      | 중국    | 3,947      |
| - 굴(活,신선,냉장)              | 136,927     | -           | -        | 한국    | 124,553    | 미국         | 6,190      | 중국    | 3,947      |
| - 굴(냉동)                   | 468,116     | -           | -        | 한국    | 454,382    | 뉴질랜드       | 13,734     | -     | -          |
| - 굴(훈제)                   | 17380       | -           | -        | 한국    | 17,380     | -          | -          | -     | -          |
| ◦패주(活,신선,냉장,냉동)           | 412,589     | 158,685     | 71.6     | 중국    | 223,495    | 한국         | 185,581    | 필리핀   | 3,513      |
| ◦바지락(活,신선,냉장,냉동)          | 1,391,989   | 1,450,210   | △4.0     | 중국    | 933,762    | 한국         | 458,227    | -     | -          |
| ◦염건 수산물                   | 11,803,852  | 9,465,462   | 24.7     | 중국    | 4,009,163  | 한국         | 2,313,007  | 칠레    | 1,664,279  |
| - 건조김                     | 259,834     | 205,323     | 26.5     | 한국    | 138,172    | 중국         | 121,662    | -     | -          |
| - 톳                       | 640,916     | 736,616     | △13.0    | 한국    | 407,761    | 중국         | 233,155    | -     | -          |
| - 미역                      | 1,984,685   | 1,578,207   | 25.8     | 중국    | 1,414,811  | 한국         | 568,375    | 아르헨티나 | 1,499      |
| ◦게 조제품                    | 4,856,408   | 3,579,988   | 35.7     | 중국    | 3,046,630  | 한국         | 1,013,193  | 인니    | 443,794    |
| ◦한천                       | 829,463     | 638,286     | 30.0     | 칠레    | 445,199    | 한국         | 213,739    | 모로코   | 60,690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굴은 전년 대비 76.1% 감소로 나타났지만, HS 코드 변경(030710100→03071100)됨. 2011년은 활, 신선, 냉장, 냉동까지 포함되었으나, 2012년은 냉동(030719100)이 분류되었음.

## □ 소비 동향

### ○ 자국생산

#### - 2011년 어업·양식업 생산량

##### ☞ 대지진으로 인한 출하규제 등으로 전년대비 10.9% 감소한 57만 9000천톤

- 1) 농림수산성이 4월 27일에 발표한 '2011년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에 의하면 2011년 1~12월의 어업·양식업생산량은 473만 3000톤으로, 전년 531만 2000톤으로부터 57만 9000천톤(10.9% 감소) 감소.(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소실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의 일부 자료 미포함)
- 2) 해면어업의 어획량은 379만 6500톤으로 전년 대비 32만 4500톤(7.9%) 감소. 고등어 38만 6000톤(전년 대비 10만 5800톤 감소), 가리비 30만 3000톤(2만 4100톤 감소), 가다랑어 26만 3800톤(3만 9100톤 감소) 등을 기록하며 감소를 보였고, 오징어와 꽁치는 미미한 증가를 보임.
- 3) 해면양식도 수확량은 86만 2800톤으로 전년 대비 24만 8500톤(22.4% 감소)이 감소하여 100만 톤에 못 미쳤다. 어류양식은 주요 품목인 방어류가 22만 8800톤(1만 6900톤 감소)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패류양식에서 가리비, 굴류의 감소 폭이 현저하여 13만 7300톤 감소한 28만 3400톤을 기록하였다. 해조류도 34만 8200톤으로 특히 미역류가 전년 대비 64.9%나 감소하였음.
- 4) 지진에 의해 자료가 전부 소실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의 일부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선과 양식시설, 육상수산시설의 피해로 조업과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것, 혹은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의 사고에 의한 출하규제와 자숙, 주변해역에서 조업의 범위와 일수를 제한한 것이 어획량·생산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5) 내수면은 조업으로 3만 4227톤(5687톤 감소), 양식은 뱀장어가 2만 2028톤으로 증가했지만 3만 9018톤(385톤 감소)을 기록하였음.

#### <어업·양식업 생산량>

| 구 분         | 2010년(천톤) | 2011년(천톤) | 전년대비 차이(천톤) | 전년 대비<br>증감율 |
|-------------|-----------|-----------|-------------|--------------|
| 해면어업        | 4,121     | 3,797     | -324        | -7.9%        |
| 해면양식업       | 1,111     | 869       | -248        | -22.9%       |
| 해면어업·양식업 계  | 5,232     | 4,659     | -573        | -11.0%       |
| 내수면어업       | 40        | 34        | -6          | -15.0%       |
| 내수면양식업      | 39        | 39        | 0           | 0.0%         |
| 내수면어업·양식업 계 | 79        | 73        | -6          | -7.6%        |
| 어업·양식업 합계   | 5,312     | 4,733     | -579        | -10.9%       |

※ 2011년 생산량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에서 자료를 소실한 조사대상이 있어, 소실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

(자료 : 일간수산경제신문 5/1)

#### - 냉동식품(2011년 생산)

- 1) 냉동식품류에 있어서 업무용의 국내생산은 수량 0.6% 증가한 86만 4,303톤으로 4년만에 증가하였고, 금액은 0.9% 감소한 3,703억엔으로 4년 연속 감소. 한편, 가정용은 수량 2.5% 증가한 55만 3,604톤, 금액은 2.6% 증가한 2,646억엔으로 호조를 보임.
- 2) 2011년 수산물 냉동식품 생산액은 44,579백만엔으로 전년(53,489백만엔) 대비 16.7% 감소이고, 그 중에서 업무용은 34,739백만엔으로 23.4%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가정용은 9,840백만엔으로 21.1%의 증가를 보임.
- 3) 냉동식품은 대지진 특수를 전후하여 이용층의 저변이 확대되어 호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외식 수요의 감소로 업무용은 감소 경향, 내식 및 나카쇼쿠(中食)의 강화로 가정용 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4) 2011년 수산 냉동식품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낫지볶음류로 32,988톤(오코노미야키 포함)으

로 전체 2.3%를 차지하고, 어류는 17,228톤을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냉동식 품목별 일본내 생산>

(단위: 톤, 100만엔, 괄호안은 전년대비 비율)

| 구분  | 냉동식품(전체)       |               | 수산물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업무용 | 864,303(0.6)   | 370,295(▲0.9) | 38,619(▲26.0) | 34,739(▲23.4) |
| 가정용 | 553,604(2.5)   | 264,557(2.6)  | 11,756(19.2)  | 9,840(21.1)   |
| 계   | 1,417,907(1.3) | 634,852(0.5)  | 50,375        | 44,579        |

### <냉동식품 품목별 일본생산량>

(단위 : 톤, 백만엔, %)

| 품목  |         | 수량     |        |       | 금액     |        |       |
|-----|---------|--------|--------|-------|--------|--------|-------|
|     |         | 2010년  | 2011년  | 증감율   | 2010년  | 2011년  | 증감율   |
| 수산물 | 어류      | 16,898 | 17,228 | 102.0 | 14,827 | 15,296 | 103.2 |
|     | 새우류     | 15,417 | 12,195 | 79.1  | 11,370 | 7,715  | 67.9  |
|     | 게류      | 2,700  | 2,502  | 92.7  | 4,007  | 3,773  | 94.2  |
|     | 오징어·문어류 | 9,482  | 3,060  | 32.3  | 7,170  | 2,984  | 41.6  |
|     | 패류      | 9,025  | 8,825  | 97.8  | 8,796  | 8,939  | 101.6 |
|     | 기타수산물   | 8,559  | 6,565  | 76.7  | 7,319  | 5,872  | 80.2  |
|     | 소계      | 62,081 | 50,375 | 81.1  | 53,489 | 44,579 | 83.3  |
| 튀김류 | 새우튀김    | 3,734  | 3,032  | 81.2  | 4,996  | 4,034  | 80.7  |
|     | 오징어튀김   | 2,898  | 2,149  | 74.2  | 1,692  | 1,383  | 81.7  |
|     | 굴튀김     | 9,711  | 9,290  | 95.7  | 7,364  | 6,540  | 88.8  |
|     | 어류 튀김   | 12,296 | 12,217 | 99.4  | 7,827  | 6,966  | 89.0  |

( 자료 : (사)일본냉동식품협회 )

### ※ 소비동향

#### ★ 2012년 4월 식품슈퍼 기준점 매상 - 수산부문은 2.8%감소

- 1) 유통 3단체가 조사한 전국 식품슈퍼의 4월 매상(속보가)에 의하면, 수산부문의 기준점 매상은 전년동월비 2.8%감소하였다. 일본슈퍼마켓협회, 모든 일본슈퍼마켓협회, 신일본슈퍼마켓협회가 22일 발표.
- 2) 기준점의 총매상은 0.9%감소로 미미한 감소를 보임. 지역별로는 북해도·동북(전년동월과 동가), 규슈·오키나와(동 0.5%증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을 하회.
- 3) 4월 핵심점포의 경기판단 MI(284사 대상, 속보가)는 전월비 0.5P 상승하였다. 매상MI(-13P), 수익MI(-13.7P)는 전월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지만 3월에 계속되는 작년의 지진의 지속적인 반동이 이어지고 있음.

#### ★ 2012년 3월 가계조사

##### ☞ 신선어패류 지출 전년대비 3% 증가. 도미는 구입량, 가격 대폭 증가

- 1) 총무성이 발표한 3월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전국 1세대 당 어패류 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감소한 6,415엔을 기록하였음.
- 2) 신선어패의 지출액은 3%증가한 3821엔이었으며, 구입수량은 1%감소하였다. 전년 동월에 비교하면 구입수량이 대폭 증가한 품목은 도미 16%증가, 정어리 10%증가 등이다. 생선회모듬과 새우가 각각 8%증가하였고 연어, 방어도 증가하였음. 대폭 감소한 품목은 가자미 15%감소, 문어 12%감소 등이다. 지출액에서 전년을 대폭 상회한 품목은 게 49%증가, 도미 20%증가 등이다. 대폭 하회한 품목은 가다랑어 10%감소를 보임.
- 3) 신선 이외에 지출액이 전년보다 대폭 상승한 품목은 어묵 17%증가, 가리비 17%증가, 굴 12%증

가. 가막조개, 바지락도 증가하였다. 대폭 하회한 품목은 어패 통조림 30%감소, 장어구이 20%감소, 어패류조림 17%감소, 다시마조림 15%감소, 자반연어 13%감소, 가리비 12%감소, 어묵꼬치구이 10%감소를 보임. 건멸치, 건전갱이, 가다랑어포류, 튀김어묵 등 전년을 하회하였음. 구입량에서는 명란젓이 11%증가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재첩, 바지락도 증가하였다. 대폭 감소한 품목은 굴 21%감소, 다시마조림 18%감소, 자반연어 13%감소 등이다. 건멸치, 건전갱이도 감소하였음.

### <전국 1세대 당 2012년 3월 품목별 지출액>

(단위 = 금액:엔, 수량:g, 평균가격: 엔/100g)

| 품 목         | 2012년 |       |     | 전년 대비 |      |      |
|-------------|-------|-------|-----|-------|------|------|
|             | 지출    | 수량    | 가격  | 지출    | 수량   | 가격   |
| 어패류         | 6,415 | -     | -   | 98%   | -    | -    |
| 신선 어패       | 3,821 | 2,695 | 142 | 103%  | 99%  | 104% |
| 신선          | 3,406 | 2,382 | 143 | 102%  | 99%  | 103% |
| 다랑어         | 424   | 198   | 214 | 95%   | 92%  | 103% |
| 전갱이         | 108   | 114   | 95  | 98%   | 95%  | 104% |
| 정어리         | 49    | 73    | 67  | 102%  | 116% | 90%  |
| 가다랑어        | 107   | 75    | 144 | 90%   | 97%  | 93%  |
| 가자미         | 135   | 113   | 120 | 94%   | 85%  | 111% |
| 연어          | 345   | 248   | 139 | 106%  | 103% | 102% |
| 고등어         | 103   | 119   | 87  | 106%  | 110% | 97%  |
| 꽂치          | 36    | 56    | 63  | 92%   | 97%  | 95%  |
| 도미          | 107   | 64    | 168 | 120%  | 116% | 103% |
| 방어          | 290   | 179   | 161 | 101%  | 101% | 100% |
| 오징어         | 185   | 153   | 121 | 101%  | 93%  | 108% |
| 낙지·문어       | 88    | 46    | 192 | 104%  | 88%  | 118% |
| 새우          | 256   | 161   | 159 | 102%  | 108% | 95%  |
| 게           | 82    | 27    | 300 | 149%  | 96%  | 153% |
| 회 모듬        | 396   | 161   | 247 | 102%  | 108% | 95%  |
| 패류          | 415   | 309   | 134 | 109%  | 94%  | 116% |
| 바지락         | 128   | 137   | 94  | 105%  | 106% | 99%  |
| 재첩          | 33    | 24    | 136 | 106%  | 109% | 96%  |
| 굴           | 85    | 49    | 173 | 112%  | 79%  | 141% |
| 가리비         | 102   | 56    | 184 | 117%  | 98%  | 120% |
| 염건 어패       | 1,145 | 731   | 157 | 92%   | 90%  | 102% |
| 염연어         | 150   | 117   | 128 | 87%   | 87%  | 99%  |
| 명란젓         | 199   | 71    | 282 | 96%   | 111% | 87%  |
| 건멸치         | 106   | 40    | 263 | 91%   | 91%  | 100% |
| 건전갱이        | 91    | 86    | 105 | 91%   | 91%  | 100% |
| 건멸치         | 30    | 17    | 178 | 107%  | 100% | 110% |
| 어육 연육 제품    | 656   | -     | -   | 98%   | -    | -    |
| 튀김어묵        | 201   | -     | -   | 94%   | -    | -    |
| 치쿠와         | 139   | -     | -   | 90%   | -    | -    |
| 가마1보코       | 210   | -     | -   | 117%  | -    | -    |
| 기타 어육 연육제품  | 106   | -     | -   | 88%   | -    | -    |
| 가다랑어포       | 68    | 23    | 300 | 92%   | 100% | 92%  |
| 어개의 절임류     | 230   | -     | -   | 103%  | -    | -    |
| 어개의 조림      | 105   | -     | -   | 83%   | -    | -    |
| 어개의 통조림     | 187   | -     | -   | 70%   | -    | -    |
| 타 어개 가공품 기타 | 202   | -     | -   | 100%  | -    | -    |
| 다시마조림       | 89    | 47    | 190 | 85%   | 82%  | 102% |
| 장어구이        | 105   | -     | -   | 80%   | -    | -    |

(주) 장어구이는 조리 식품에의 분류를 위해 어패류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 ○ 대외 수입

### - 재무성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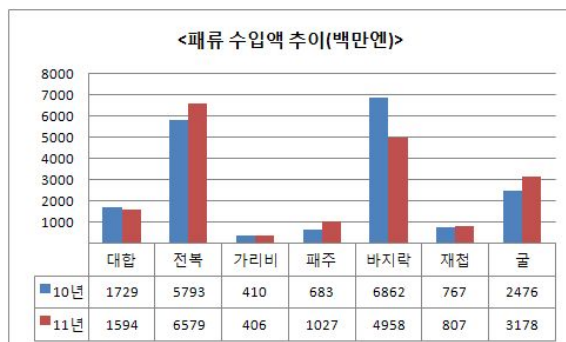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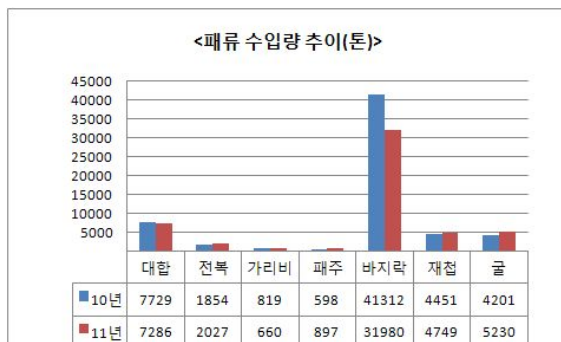
#### ☞ 21만톤 약간 상회, 1180억엔

- 재무성의 통관통계에 의하면 3월 수산물수입은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1월에 이어서 2개월 만의 두 자릿수 증가로 수량은 5개월 연속, 금액은 8개월 연속으로 각각 플러스를 유지.
- 수산물국제유통협의회(구·일본수산물물역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3월의 수입은 21만 6142톤·1182억 2200만엔으로 작년 동월 대비 수량은 18.3%, 금액은 15.8% 각각 크게 신장하였다. 뱀장어의 감소로 활어가 주춤거렸지만, 주력인 냉장·냉동이 전체에서 15만톤을 넘어 작년 동월보다 3만톤 이상 증가한 한편, 소금에 절인 제품과 조제품도 다소 증가.
- 주력인 연어·송어는 냉동인 은빛연어가 1만 1283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80%가까이 증가했고 1개월 부터 3개월 사이에서는 5만 3000톤으로, 작년 대비 10%증가하였다. 작년 10월부터인 신물품 시즌에는 7만 7700톤으로 전년 동기 6만 4600톤보다 1만 3000톤 정도 증가.
- 냉동은 이 밖에 송어와 가공품도 다소 증가했지만 조달가격의 하락으로 노르웨이의 후레쉬 애플란 틱상품이 대폭으로 늘고 있으며 생선전체에서는 월간 3000톤을 넘었음.
- 고등어 수입은 누계로 이미 작년 동기에 비해 50%증가하였음. 아일랜드 이외에 독일선박에 의한 수입도 900톤으로 집계되었음.
- 갑각·연체류에서는 러시아의 냉동 타라바가니(게)가 서서히 결정되고 있지만, 생산속도가 늦어진 미국의 냉동 바다참게는 작년 동월의 절반 이하이다. 러시아의 활게는 이전과 다름없이 저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냉동 새우는 양식이 인도 이외에는 전부 전년에 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에비(甘海老)계도 러시아와 그린란드가 중단되는 등, 전체에서는 전년 동월을 10%정도 하회하는 등 저조함.
- 문어는 아프리카산이 비교적 순조로운 반입이 지속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원활하지 않는 중에도 수입수량은 작년을 상회하고 있다. 오징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순조롭다. 성게도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음.
- 참치류는 신선·냉장은 눈다랑어가 증가한데 반해 황다랑어는 감소했고, 냉동은 고급 참치가 저조하였지만 대중적인 참치는 전년을 상회하였다. 반면, 참치 가공류는 반감하였다.
- 어묵은 미국산 명태가 작년 동월의 3배로 결정되었고, 순조로운 생산을 배경으로 조기 반입이 되고 있음.

(자료 : 일간수산경제신문 5/1)

### - 패류 수입 현황

- 패류는 금액 기준으로 전복 6,579백만엔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 굴 3,178백만엔으로 28.3% 증가를 보이고 있음. 한편, 바지락은 4,958백만엔으로 27.7%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전복 등은 동북지역이 주산지이기에 작년 대지진 피해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자료 : 일본농수산성)

## □ 향후 시장 전망

### ○ 이슈 현안

- 패류가 제철을 맞아 2012년 생산 및 수입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수입수산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어나 장어는 일본산보다 고가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개류 4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할 증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2할 증가하였음
- 장어류, 다랑어류의 고가로 추이함으로 인한 대체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여름철 장어 수요기를 맞이하여 고가로 추이하는 장어류를 대체하는 상품 모색
  - 다랑어류의 고가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연어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 수입 전망

- ☞ 2012년 일본내 한국산 전복 수입은 최대 1,400톤 예상하고 있음. 굴의 수입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냉동 굴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 패류

##### 1) 전복 수입 전망

☞ 지진피해로 인해 한국산으로 이동 → 일본으로의 수출, 올해는 최대 1400톤

- 한국산 바다 전복의 수입이 전년의 1280톤(활/신선/냉장)에서 20%정도 상승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kg당 700~800엔 높은 4500엔(80~90g사이즈)으로 작년 가을 이후 고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 봄에 들어서 서서히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의 골든위크(4월말~5월초의 황금연휴)는 각 사 통상 1.5배를 판매하는 등 호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산리쿠산 부활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한국산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백화점과 양판점이 판매하는 조림세트에도 전복조림이 들어가는 등 가을 이후 가공용 전복의 구매수요도 전망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아시아용으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7000톤 전후의 생산이 예측되고 있다. 수입업자 사이에서는 “일본으로의 수출은 최대 1400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 일간수산경제신문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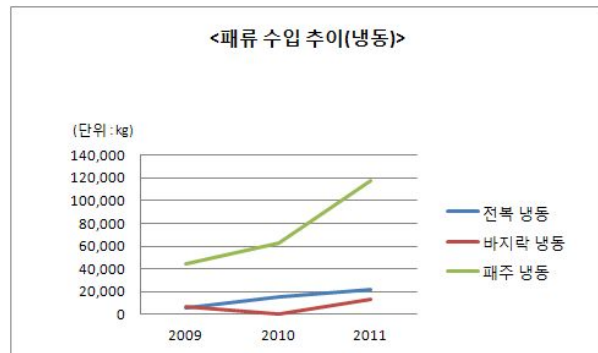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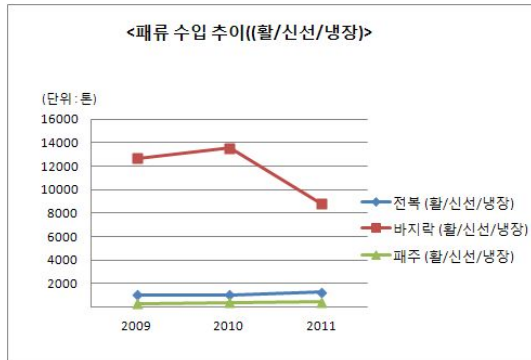
##### 2) 굴 수입 전망

- 미국의 한국산 굴의 노로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한 수입·유통금지로 인한 일본내 조치는 아직 없음.
- 한국산 양식 굴은 최근 수년 생산량은 껍질제거 환산으로 추정 4만~6만톤. 일본보다도 3~5할 정도 많음. 2010년 수출량은 9544톤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 수출금액은 6606만달러로 56% 증가.
- 일본용은 4182톤으로 전체 44%. 전년대비 1.5배. 수출액은 2678톤으로 1.7배 증가.
- 향후 미식품의약품국에 의한 한국산 굴 수입·유통금지조치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 최대 수자료인 일본 시장에 안전·안심 소구 필요.

(자료 : 미나토신문 5/23)

### 3) 냉동 패류 수입 전망

- 활/신선/냉장 전복의 2011년 증감율은 30.0%의 증가였지만, 냉동패류는 60.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냉동 패류의 경우 수량 기준으로 전복 44.1%, 패주 8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향후 패류의 냉동패류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함.
- 한국산 활/신선/냉장 굴 수입액은 '12년 3월 현재 124,553천엔, 냉동 굴 수입액은 454,382천엔으로 76% 정도가 냉동 굴 수입으로 추이하고 있음. 향후, 일본내 냉동패류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자료 : 일본관세협회)

### <한국산 패류 수입 동향>

(단위 : kg, 천엔)

|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증감율   |       |
|-----|---------|------------|-----------|------------|-----------|-----------|-----------|-------|-------|
|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전복  | 활/신선/냉장 | 1,007,544  | 3,208,580 | 1,040,085  | 3,294,862 | 1,280,031 | 4,284,127 | 23.1  | 30.0  |
|     | 냉동      | 5,414      | 19,167    | 15,406     | 57,049    | 22,205    | 91,697    | 44.1  | 60.7  |
| 바지락 | 활/신선/냉장 | 12,685,688 | 2,934,125 | 13,555,023 | 3,198,167 | 8,805,740 | 2,096,333 | ▲35.0 | ▲34.5 |
|     | 냉동      | 7,150      | 2,366     | -          | -         | 13,570    | 4,084     | -     | -     |
| 패주  | 활/신선/냉장 | 289,270    | 378,561   | 366,836    | 441,478   | 445,116   | 567,633   | 21.3  | 28.6  |
|     | 냉동      | 44,085     | 56,357    | 63,090     | 93,152    | 117,826   | 176,973   | 86.8  | 90.0  |

### - 다랑어류 및 연어류

- 다랑어나 붕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가다랑어가 예년보다 고가로 추이하고 있는 중, 비교적 저렴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연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연어·송어는 냉동인 은빛연어가 1만 1283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80%가까이 증가했고 1개월부터 3개월 사이에서는 5만 3000톤으로, 작년 대비 10%증가하였다. 작년 10월부터인 신물품 시즌에는 7만 7700톤으로 전년 동기 6만 4600톤보다 1만 3000톤정도 증가하였음.
- 연어도 대지진 후에 수입물이 증가하였다. 산락쿠 은연어 양식시설이 피해한 것에 더해, 연안부에 있던 재고가 쓰나미에 유출되었기에, 상사 등이 대량으로 수입품을 수배하였다. 일본내 연간 소비량은 40만~50만톤. 이 중에 09년까지는 국산품이 6할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은 수입품 점유율이 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수요가 높은 것이 회전 스시 등에서 사용하는 노르웨이의 아틀랜틱 연어다. 양식이어서 지방이 많은 것에 더해, 날것으로도 구워서도 먹을 수 있기에 인기가 높아, 작년 수입량은 2만톤이 넘어 전년대비 약 1할 증가하였음.

- 도매가는 1kg 당 800~850엔으로 일본산보다 100~300엔 높다. 금년은 일본산품의 공급이 회복될 전망이지만, 수입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4월까지 수입량은 작년의 6할 상회하고 있다. "칠레산이나 호주의 타스마니아산도 포함되어 연어시장 주력은 지금은 수입물"(츠키지 도매회사 관계자)이라고 함.

#### - 장어류

- 양식용 치어 어획 부진으로 대폭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활장어 도매가도 작년 말 이후, 중국산이나 대만산이 일본산을 상회하고 있다. 공급부족을 배경으로 중국·대만의 양식업자가 출하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임.
- 그래도 매입자가 생기는 것은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단 반년에 출하되는 일본산과 비교하여 중국·대만산은 "자연에 가까운 노지 가두리에서 1년 이상 양식되어, 품질이 고른"(아이치현 도매관계자) 것도 한 원인.
- 한국산 장어는 2011년 12월 27일 활장어 검사명령 이후 수입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2012년 장어가공품에 대한 명령검사(3월30일 오프로프로삭신 검사)가 내려지는 등 안전면의 강화가 필요함. 6월에 일본장어협회 모리야마 이사장 등이 한국산 장어 관련 시찰을 가는 등 수입재개를 위한 대응 필요.(자료 : 후생노동성, 수산타임스 6/4)
- 고가로 인한 소비 대체로 갯장어, 붕장어 등의 관심 고조.

####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 작년 대지진 재해로 인해 한국산 수입량이 늘었지만, "(미역의 경우) 산리쿠 양식이 재개되어도 한국산 취급량은 8할로 변함이 없다"(도쿄 츠키지 도매회사 관계자)는 것처럼, 한국산 인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함.
- "(한국산 전복) 유통이 잘 정비되어 있고, 생산이력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고품질 전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특징"((트루월드 재팬)인 강점이 있어, 신뢰가 일본내 시장관계자에게 확산되고 있음.

(자료 : 일간수산경제신문 5/23)

#### ○ 시사점

- 2012년 일본내 패류 생산 부족으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가 예상되는 와중에, 품질·안전면의 철저한 관리 필요. 또한, 냉동품의 수입 증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적절한 대책 요망.(자료 : 일본관세협회)
- 일본내 장어류, 다랑어류의 고가로 인해, 대체 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장어류의 대체로 갯장어, 붕장어가 대두되고 있으며, 다랑어류의 대체로 연어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향후 어류 가격 동향을 주시, 소비 트렌드를 파악이 필요함.(자료 : 일본경제신문 5/26)

## □ 특정품목 시장동향 1 - 패류

### ○ 생산, 소비동향

- ☞ 바지락을 비롯해, 대합, 재첩, 함박조개(개조개) 등이 제철을 맞아 생산 유통되고 있음. 바지락은 아이치현, 함박조개는 후쿠시마현이 주산지임.

#### - 가리비

##### ☞ 이번 시즌 반성패 4~5만톤으로 산지가는 kg 당 90엔 - 아오모리산

- 1) 이번 시즌(2012년도)의 아오모리 양식가리비의 어획이 4월부터 시작하였다. 주력인 반성패는 저수온의 영향으로 방란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히루우치 지역의 어획뿐이며 본격적인 시즌은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어획량은 전 시즌부터 회복되고 있다고 전망되고 있지만 일년 전 여름의 고수온피해로 인해 평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됨.
- 2) JF아오모리 어련은 ‘반성패가 4~5만톤, 성패 등을 포함하면 전부 6만~7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3) 반성패의 항구가격(입찰1회째·3월 28일)은 전 시즌을 크게 하회하는 kg당 90엔(전 시즌은 kg평균 172엔)을 기록하였다. 고가로 인하여 소비지에서의 소비가 둔화되었고,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월년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시세상승의 주요 원인은 없고, 당분간은 보합의 전개가 예상됨.
- 4) 3월 말에 종어한 전 시즌(11년도)의 생산고는 수량이 3만 4128톤(전년비 51%감소), 금액 61억 2362만엔(동 24%, 세금제외)이었다. 흑서였던 전년도의 고수온에 의한 폐사 등의 피해가 영향을 미쳤다. 반성패는 1만 8509톤(동 59%감소), kg평균단가가 172엔(동 61%상승)으로 상승했지만 수량감소로 금액은 31억 9125만엔(동 34%감소)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자료 : 미나토신문 5/8)

#### - 굴

##### ☞ 신선굴 전년대비 20~30% 상승

- 1) 히로시마산 껍질제거 굴의 4월 현재 평균 산지가격은 1칸(약 20kg)당 1만 500엔이다. 요즘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굴튀김 수요를 배경으로 냉동가공용 굴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도 20~30% 상승하여 전년동기 수준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 히로시마 굴은 3월로 신선물 출하는 종료하였고, 최근에는 가공용으로 전환되었다. 냉동 굴의 생산은 전년 평균으로 1월 하순부터 개시되었다. 기온이 낮았던 1, 2월은 신선 굴의 거래가 전년보다도 증가되었고, 냉동의 생산속도는 지연되었다. 2월 이후는 생산자의 순조로운 출하와 산지가격(평균 1만 500엔)안정이 지속되어, 현재는 전년 평균의 생산속도로 회복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3) 또한 히로시마산 껍질제거 냉동 굴(IQF)의 제조업체 판매가격은 작년 가을까지는 1kg당 800엔이었지만, 산지가격 상승과 ‘3.11’의 동북산 경감 등으로 현재는 100엔 상승한 900엔으로 취급되고 있음.
- 4) 한편, 굴튀김용의 한국산 냉동 굴은 3월경부터 일본 상사의 매입이 본격화된다. 올해는 한국 내수 호조로 전년대비 5% 상승한 가격으로 시작하였다. 여기에 엔저가 더해져, 3월에는 추이를 관망하던 상사가 많았다. 4월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한국산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미나토신문 5/8)

#### - 바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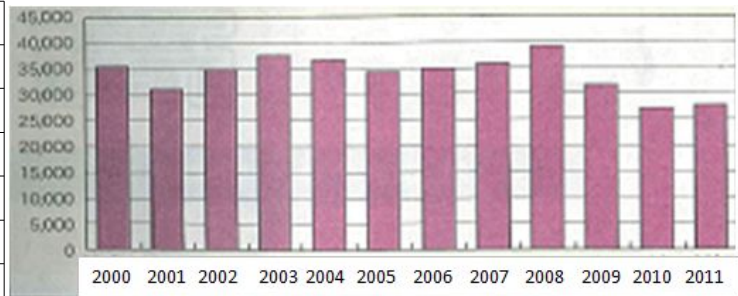
- 1)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아이치이다. 기온과 수온의 저하로 연초에는 생산이 적었지만 기온의 상승과 함께 본격화되었고 전국적으로 예년 평균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음.
- 2) JF니시미카와어련은 “어획은 작년보다 감소, 품질은 양호, 가격은 예년 평균 수준”이라고 함. JF다라하시어련은 “저인망에 의한 것은 작년보다 수량이 늘었다. 자원량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맹이도 좋으며 특히 2월, 3월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JF쿠마모토어련은 2010년도는 3만 455만(1만 12kg)로 생산이 대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011년도는 13만 2000만까지 회복하였다. 올해는 3월 이후 고품질로 출하가 진행되고 있음.

- 3) JF지바현어린이의 바지락조개 사업소는 현내산을 비롯하여 아이치산과 쿠마모토산 등 연 약 2000톤의 바지락 조개를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골치를 썩었던 바다거미의 피해도 비교적 진정되어 생산량이 증가한 것 등으로 인하여 현산 바지락 조개의 취급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알맹이가 굉장히 좋다. 큰 사이즈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동사업소)”고 함.

<2011년 바지락 생산 상위 지역>

| 지역명  | 수량(100톤) |
|------|----------|
| 아이치  | 158      |
| 시즈오카 | 48       |
| 구마모토 | 19       |
| 미에   | 19       |
| 홋카이도 | 11       |
| 치바   | 8        |

<일본 바지락 생산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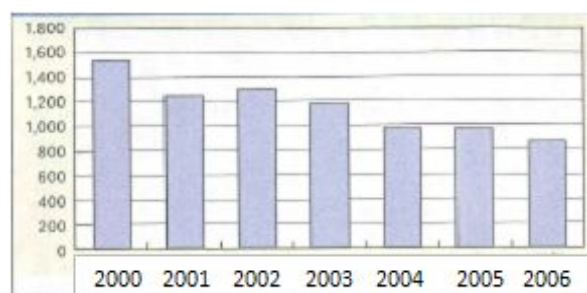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

#### - 대합

##### ☞ 쿠마모토에서도 자원회복 경향 대만의 가을철 패류를 동경만으로

- 1) 일본국내에서는 이바라키, 쿠마모토, 지바 등이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 쿠마모토현에서는 2009년도에 약 7만kg였던 어획량이 2011년도에는 13만kg까지 증가하였다. “자원이 회복하고 있고 있으며, 서서히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출하 절정인 3월도 알맹이는 굉장히 좋았다”고함(JF쿠마모토어린이).
- 2) 지바현에서는 국내산 내만(内湾)성 대합의 어미패를 대만에 보내고, 산란한 가을 패류를 동경만의 어장에 방류하는 것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당초는 여름철의 폐사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50톤을 생산하는 등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음.

<전국 대합류 생산량(톤)>



2007년 이후 데이터 없음.

출전: 농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

#### - 재첩

##### ☞ 국내 1만톤, 수입4000톤 안정적인 추이 수입량은 러시아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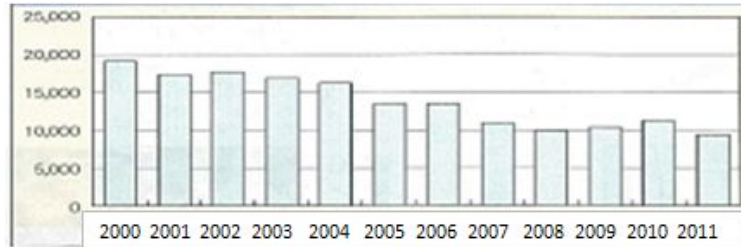
- 1) 재첩 생산량·수입량은 최근 거의 포화수준으로 일본국내 생산량이 약 1만톤, 수입량(신선·냉동)은 약 4000톤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 농촌수산성의 통계로는 재첩의 생산량은 2011년이 9474톤으로, 2010년의 1만 1189톤에서 1715

톤 감소하였다. 한편,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은 신선·냉동을 합쳐서 2011년은 4749톤으로, 2010년의 4451톤에서 298톤 증가하였음.

- 3) 2011년의 생산량이 많았던 것은 아오모리에서 3672톤, 시마네가 2358톤, 이바라기가 915톤, 북해도가 827톤 등.
- 4) 올해 가격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kg당 1000엔부터 500엔 정도.
- 5) 작년 이맘쯤에는 바지락에 포함되어 있는 오르니틴 등의 약효로서도 주목되었음.

※ 오르니틴:염기성 α-아미노산의 한 가지

#### <전국 재첩류 생산량(톤)>



출처: 농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

(자료 : 일간수산경제신문 5/23)

#### ※ 패류 업계 동향

##### ★ 오사카시 활어 협동조합

- 수온이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재첩. 오사카시 어업협동조합의 기타무라 대표조합장은 "껍질 색이 좋아 '나니와의 거북이 등껍질 재첩'의 애칭으로 친숙해있다. 인지도 향상으로 시세도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 출하하는 등, 어업자 주체로 적극적 시장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오사카만에서 채취된 야마토 재첩으로 모래에 생식하는 귀중한 천연 재첩. 오사카만산 브랜드 '나니와모노(魚庭物)'에도 인증된, 오사카만 수산물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재첩어획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어업자는 8인 정도. 재첩만이 아닌, 계절에 따라 장어 어획 등과 병행하면서 어가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 수온이 낮은 원인도 있어 금년은 아직 다량 채취되지 않지만, 우량이 많은 것 등으로부터, 상류로부터 영양염이 많아, 둥굴고 큰 재첩이 채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니와 벵코 재첩>

##### ★ JF 치바어련

###### 바지락, 대합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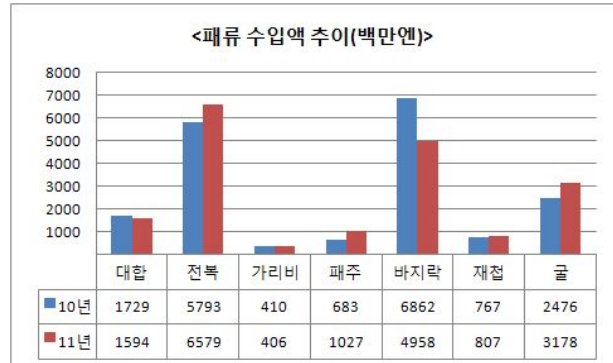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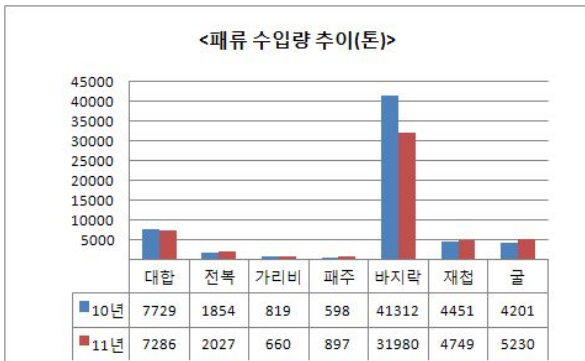
###### 에도시대 전 대합 - 도쿄만 생육, 대형 크기

- JF 치바어련에서는 바지락을 비롯해, 대합의 판매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바지락은 최근 수년, 바다거미 발생의 영향도 있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치밀한 구제작업 등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채취가 회복되고 있음.
- 또한, 대합은 2005년부터 일본국내산 내만(內灣)성의 어미 패류를 대만에 보내, 산란시켜 육성한 치패를 도쿄만내의 어장에 방류하는 방법을 개시. 개시 직후는 환경 변화나 수온의 영향 등으로 폐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순조로운 채취로 정착하고 있음.
- 채취된 대합은 '에도 전 대합'으로서 관동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행하고 있다. 규격으로서는 껍질 폭 21mm, 무게는 20g~25g 정도 큰 상품을 선별하여 출하시키고 있음.
- 채취는 JF 에가와어협, JF 쿠즈마어협, JF가네다, JF우코미어협의 5어협에서 행하고 있고 수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현의 홈페이지에서 공표하는 등 안전면에서도 배려하고 있음.
- 지금부터 제철이기에, 크고 부드러워 대합구이 외에, 장국 등으로 요리함.

#### ○ 수입동향

패류는 금액 기준으로 전복 6,579백만엔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 굴 3,178백만엔으로 28.3%

증가를 보이고 있음. 한편, 바지락은 4,958백만엔으로 27.7%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전북 등은 동북지역이 주산지이기에 작년 대지진 피해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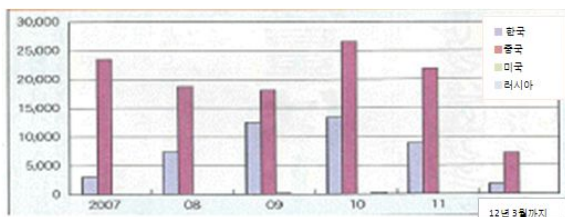
## - 바지락

### ☞ 수입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주류

#### 냉동 바지락은 다시 증가

- 신선 수입 바지락 조개는 중국과 한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입량은 2010년을 절정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2011년은 중국으로부터 약 2만2525톤, 한국으로부터 8805톤 정도를 수입하였음.
- 냉동 바지락도 중국과 한국이 주류이다.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를 보였지만, 201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은 약 1148톤이 수입되었음.

**<신선 바지락 수입량 추이>**



**<냉동 바지락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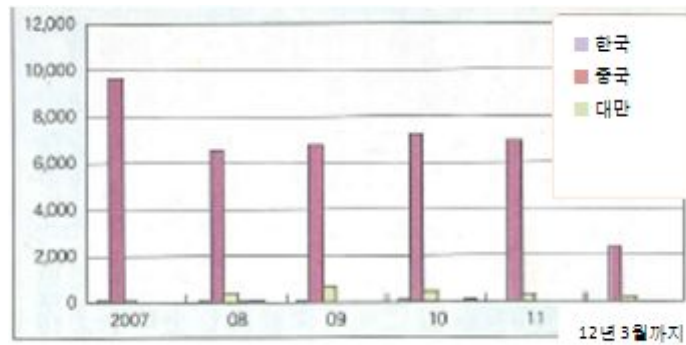


## - 대합

### ☞ 중국국내 소비상승으로 향후 감소 예상

- 신선 대합의 수입은 중국과 대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11년은 중국으로부터 6924톤, 대합으로부터 326톤이 수입되었음.
- 신선 대합의 수입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중국국내의 소비도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는 감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음.
- 이 때문에 가공업자를 중심으로서는 미얀마산의 대합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시설과 유통망 구축 등 어려움이 많기에 구매까지는 불확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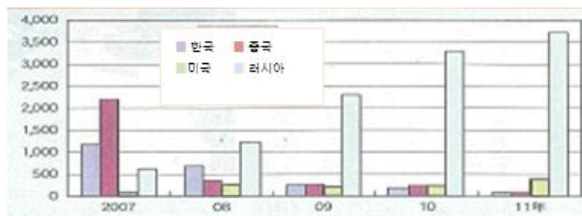
**<신선 대합 수입량 추이(톤)>**



#### - 재첩

- 신선수입량은 러시아가 3719톤, 대만이 390톤, 중국이 81톤, 한국 73톤을 기록하였음.

<신선 재첩 수입량 추이(톤)>



<냉동 재첩 수입량 추이(톤)>



####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 한국산 전복의 생산이력 등 안전과 품질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일본내 활전복 뿐만이 아닌, 냉동 및 가공품에서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트루월드 재팬).

#### ※ 한국산 전복 취급업체 동향

##### ★ (주) 트루 월드 재팬

###### ☞ 한국산 에조 전복이 호평. 질 좋은 전복을 안정공급

- 1)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종합식품상사인 (주)TRUE WORLD JAPAN은 한국의 완도산 고품질의 에조 전복을 엄선하여 취급하고 있고, 신선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호텔·여관, 양판점 등에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호평을 받고 있음.
- 2) 동 사가 취급하는 전복은 한국국내의 전복생산·판매로 최고 점유율을 과시하는 ‘청산바다’로부터 구입한 엄선 소재이다. 일본에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60g사이즈를 중심으로 50~140g정도 까지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 ‘청산바다’는 한국국내에서는 희귀한 생산자 자신이 생산과 수출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작년에는 500만톤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생산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
- 3) 신사장은 현지도 시찰하여 ‘유통이 견고하게 정비되어 있고, 입하부터 먹이주는 일 등의 사육상황, 생산자, 출하까지의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알맹이 질이 좋은 전복을 안정공급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며 두터운 신뢰를 보였음.
- 4) 천연에 가까운 형태로 양식되는 전복은 굉장히 부드러운면서도 쫄깃한 육질로 자연산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 5) 同社(동사)에서는 취급선을 용도와 요청에 대응하여, 활전복뿐만 아니고 냉동 에조전복과 일본국내에서 조림도 취급하고 있다. 활어수조를 갖고 있지 않은 스시점 등의 음식점, 조림요리세트를 판매하는 양판점 등으로부터의 거래도 증가하였다. 용도와 요청에 힘입어 최적의 상품을 제안, 전복시장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주)일본활어

☞ 한국산 활전복, 톱 점유율  
풍부한 경험과 확실한 기술

- 1) 한국산 바다전복의 취급의 톱 점유율을 자랑하는 (주)일본활어. 고품질의 활전복을 풍부한 경험과 기술로 유통시키고 있음.
- 2) 동사는 활어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의 수출입·판매 전문상사로서 세계로부터 도착한 신선한 식재를 일본전국으로 운송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완도산 예조전복은 80~90g정도의 크기를 중심으로 풍부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 두툼한 살과 양식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오독오독거리는 식감이 특징임.
- 3) 작년에는 완도군도 출자하였고,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주)완도전복과 MOU를 체결하였다. 완도 전복으로부터 유통을 취하고, 뛰어난 품질의 전복만을 수입한다. 다시마나 미역을 먹이로 한국의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완도에서 양식되어진 전복은 농후한 맛과 풍미, 두툼한 살을 가지고 있음.
- 4) 가공품 발명·발매에도 착수하고 있고 카네다 구입부장은 ‘활어를 판매하면서 맛과 식감을 살린 가공품도 개발하는 중임.

## □ 특정품목 시장동향 2 - 다랑어류

### ☞ 공급증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 → 가격 다소 수정 국면

- 수산물 중에서 주요 품목인 다랑어는 남획 등으로 최근 어획이 저조하여 공급 감소인 상황에서, 대만어선의 인도양 조업 재개, 근해에서의 어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일시적 공급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보였지만, 현재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연어류 등에 소비가 이동한 수요 탈환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 생산동향

#### - 근해 어획 다랑어 동향(4월)

- 시사통신사가 집계한 츠키지시장 4월의 신선 대량판매장, 국내산의 입하마리수는 1835마리로 전년 동월비 30.9%의 감소를 보였다. 이 가운데, 참다랑어는 887마리로 29.9%감소하였다. 자연산은 352마리로 31.1%의 감소를 보였음.
- 크기·산지별로 보면, 대형(100kg이상)은 나치카츠우라 주최의 74마리로 전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였다. 경합하는 동 크기의 수입물이 적었기 때문에 고가가 형성되어, 평균시세는 kg당 9079엔으로 16.6%상승하였다. 동 산은 43마리 중 18마리에 1만엔 이상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음.
- 중형(40~99kg)는 이키와 대마도 등의 나가사키 주최로 148마리로 40.3%감소하였다. 동 산은 증가하였지만 고치와 사도의 고정가가 대폭으로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평균시세는 동 5529엔으로 10.5%상승하였음.
- 소형(40kg미만)도 나가사키산이 주력으로 마리수는 130마리로 26.1%감소하였다. 동 산은 '중순부터는 지방제거 상품의 두드러진 판매행진이 악화되었다'(도매회사)이 때문에 평균시세도 거의 전년 평균인 2952엔에 이르렀다. 전월에 이어서 중형과 소형은 이즈·시타다산의 주낙물 28마리가 입하되었다. 한편, 양식은 535마리로 28.9%감소하였다. 크기가 조금 큰 아미미오와 나가사키산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며 경매가 성립한 261마리(48.7%)의 평균시세는 3465엔으로 3.1%상승하였다.
- 눈다랑어는 545마리로 23%증가하였다. 주력인 조시산(393마리)이 46.7%증가하였지만, 나치카츠우라(73마리)와 미야자키산(50마리)은 거의 전년 평균수준을 기록하였다. 보슈카츠오라(48마리)와 오키나와산(9마리)은 조금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신선도가 좋았다"는 조시산의 가격상승 영향으로 전체 평균시세는 2500엔으로 18.5%상승하였음.
- 황다랑어는 403마리로 57.4%감소하였다. 주력인 미야자키산(260마리)이 거의 반감한 한편, 나치카츠오라(100마리)도 전년동월의 25%정도로 급감하였다. 경매가 성립한 273마리(67.7%)의 평균가는 1946엔으로 21.6%로 상승하였음.

#### 츠키지 신선다랑어류 월간 동향(국내, 2012년 4월)

(단위 = 수량:마리, 가격:kg당 엔, 대:100kg이상 · 중:40kg이상 · 소:40kg미만)

| 어종   | 어법    | 크기 등 | 당해 년도 |        |       |       | 전년동월 |        |       |       |
|------|-------|------|-------|--------|-------|-------|------|--------|-------|-------|
|      |       |      | 수량    | 고가     | 중가    | 저가    | 수량   | 고가     | 중가    | 저가    |
| 황다랑어 | 양식    | -    | 1     | -      | -     | -     | 1    | -      | -     | -     |
|      | 승·조·정 | -    | 402   | 4,500  | 1,946 | 1,000 | 945  | 3,500  | 1,600 | 300   |
| 참다랑어 | 양식    | 무작위  | 535   | 4,500  | 3,465 | 2,600 | 753  | 4,500  | 3,265 | 2,500 |
|      | 승·조·정 | 소    | 130   | 6,000  | 2,952 | 2,000 | 176  | 4,500  | 2,999 | 2,000 |
|      |       | 대    | 47    | 16,500 | 9,079 | 2,300 | 87   | 13,500 | 787   | 3,500 |
|      |       | 중    | 148   | 10,000 | 5,529 | 2,000 | 248  | 12,000 | 5,003 | 1,500 |
|      | 선망조업  | 소    | -     | -      | -     | -     | 1    | -      | -     | -     |
| 눈다랑어 | 승 외   | -    | 545   | 5500   | 2,500 | 150   | 443  | 6,200  | 2,109 | 500   |

(자료 : 미나토신문 5/16)

## - 근해 어획 다랑어 동향(5월)

### ☞ 츠키지시장, 냉동상품 부진

- 1) 동경 츠키지시장에서의 5월에 들어서부터 근해의 황다랑어, 정치망의 다랑어 반입이 활발하게 되어 냉동 눈다랑어, 황다랑어의 판매 부진 및 재고 속출.
- 2) 근해의 황다랑어는 조시(銚子)항에서의 어획량이 많아, kg당 400~500엔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냉동 대형 눈다랑어도 골든위크 전까지 900엔이었던 것이 650엔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근해 생다랑어의 대폭적인 반입과, 고치 등의 서일본지역, 산리쿠지역의 정치망에 의한 다랑어가 어획되고, 츠키지시장에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냉동다랑어의 수요 감소.
- 3) 근해의 황다랑어는 1마리 20kg가 정도 사이즈지만 지방이 적음. 또한 정가의 다랑어도 1마리 50kg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방분이 많지 않음.

## - 원양 다랑어 동향

### ☞ 5~6월에 반입증가로 가격 하락

- 1) 대만어선의 인도양 어업재개로 5~6월 냉동 황다랑어, 눈다랑어 반입 증가로, 시세도 눈다랑어 kg당 950엔으로 책정됐던 것이 요즘 850엔으로 하락하는 등 양판점에서의 특판가격수준인 800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함(냉동 다랑어 도매업자).
- 2) 한편, 작년에 냉동다랑어의 부족으로 인해 대만의 소형어선에 의한 날개다랑어 반입이 활발하였지만, 올해는 날개다랑어의 시세가 kg당 280엔였던 것이 350엔으로 20%나 상승한데다가, 취급되던 날개다랑어의 제품이 고르지 못하여 선별적으로 반입하는 등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보다 태국의 통조림원료로써 공급이 이동하는 상황도 발생.

## - 양식다랑어 동향

### 1) 일본국내의 참다랑어 양식업자의 양식실적 - '11년 12월 31일 수산청 발표

- 참다랑어양식을 하고 있는 경영체의 수는 83으로 나가사키 36, 에히메현 13, 가고시마 8, 와카야마 6, 미에 5, 오이타 3, 고치 3, 기타 9였다. 또한, 현별 참여경영체수는 94로 나가사키 40, 에히메현 13, 가고시마 10, 와카야마 7, 미에 6, 고치 6, 오이타 4, 기타 8.
- 양식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137개이다. 나가사키 56, 가고시마 21, 에히메 15, 미에 10, 와카야마 8, 오이타 8, 고치 7, 기타 12이며 양식어항의 수는 949대로 나가사키 461, 가고시마 128, 와카야마 77, 에히메 74, 미에 70, 고치 53, 오이타 47, 기타가 39.
- 참다랑어 인공수정 수는 전국 67만 6000마리이다. 거기서 천연종묘가 53만 5000마리, 인공종묘가 14만 1000마리이다. 천연종묘는 나가사키 21만 1000마리, 미에 11만 9000마리, 가고시마 5만 1000마리, 고치와 와카야마가 3만 1000마리, 에히메 1만 8000마리, 오이타 7000마리, 기타 6만 6000마리이다. 인공종묘는 나가사키 6만 1000마리, 미에 3만 9000마리, 가고시마 2만 5000마리, 고치 1만 6000마리.
- 양식다랑어 출하 마리수는 전국 17만 5000마리이다. 나가사키 6000마리, 미에 2만 2000마리, 고치 1만 7000마리, 에히메 1만마리, 오이타 7000마리, 와카야마 5000마리, 기타 8000마리이다. 출하중량은 전국 9044톤이다. 나가사키가 3050톤, 가고시마 2613톤, 미에 983톤, 고치 955톤, 오이타 349톤, 에히메 293톤, 와카야마 239톤, 기타 553톤.

### 2) 세계 양식다랑어 동향

#### ☞ 1600톤 감소인 2만 6200톤

##### 공급감소, 연말은 고가시세로

- 작년 해외의 양식다랑어의 수조에 넣는 수량(월년도 포함)은 작년보다 1600톤 적은 2만 6269톤이었다. 지중해가 작년보다 2100톤 적은 8269톤, 멕시코가 동 1500톤 많은 4000톤, 일본이 동 1000톤 적은 8000톤, 호주는 작년과 같은 6000톤을 기록하였음.
- 최근, 스페인은 1573톤(작년1590톤)과 작년부터의 월년 450톤, 크로아티아 343톤(동 350톤)으로 월년 2500톤, 몰타 701톤(동 1390톤)으로 월년 200톤, 튀니지 764톤(동 780톤), 포르투갈 180톤(동 0), 터키 628톤(동 200톤)으로 월년 330톤, 이탈리아 430톤(동 0), 그리스 100톤(동 200톤)으로 월년 50톤을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올해의 신규 수조에 넣는 수량은 4719톤, 작년부터의 월년은 2550톤으로 합계 8269톤을 기록하였음.
- 지중해에서의 수조에 넣는 수량이 감소한 것은 ICCAT의 어획제한의 삭감에 의한 것으로 1년전부터의 월년몰이 많다. 또한 멕시코는 소형생선 2000톤이 어획되었고, 내년까지 월년하여 크게 키우지 않으면 출하가 불가능하다. 작년부터 2000톤이 월년하고 있고, 수조에 넣는 수량 합계는 4000톤임.
- 또한 작년연말 축양식다랑어의 상업전쟁은 ICCAT에서의 지중해로의 규제가 강화된 것과 일본의

양식다랑어가 태풍 등의 피해로 생각만큼 생산이 늘지 않아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에 KG당 3200~3500엔으로 보통의 시세로 마감.

- 앞으로도 엄격한 자원관리가 이행된다면, 일본의 기름진 다랑어 시장의 안정에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시장으로의 공급이라는 효과가 있음.

(자료 : 수산타임즈 5/28)

#### - 메지다랑어(새끼다랑어)

##### ☞ 이른 출하로 2~3할 저렴, 어획량 작년 2배

- 참다랑어의 새끼 다랑어가 작년보다 이른 출하를 보이고 있다. 5월 어획량은 작년 2배로 비교적 한국산도 입하되고 있어 시세는 전년 대비 2~3할 저렴한 수준임.
- 20kg 이하 참다랑어는 새끼 다랑어로 분류되어, 5~7월에 걸쳐 큐슈나 동해를 중심으로 어획되고 있다. 매년, 어획 절정은 6월로 되지만, 금년은 5월 후반부터 나가사키 고토우(五島) 등 큐슈에서의 어획이 호조로 추이되고 있다. 어업정보 서비스센터가 취합한 5월의 일본전국 어획량은 약 260톤으로 작년보다 배증하였음.
- 도쿄 츠키지에서의 도매가격은 1kg 당 600~700엔이 중심이다. 1kg 당 400엔 전후인 한국산이 대량 시장에 나오고 있어, 작년 동 시기보다 평균적으로 150엔 넘게 저렴한 상황이다. 성어 참다랑어와 비교하여 5분의 1정도의 가격이다. 도쿄도내 슈퍼에서 횡감용이 1팩 600~1,000엔으로 팔리고 있음.

(자료 : 일본경제신문 6/1)

#### - 가다랑어 동향

##### ☞ 가다랑어 시세 - 어획 증가로 가격은 평년 수준(3할 하락)

- 제철을 맞은 가다랑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하락 안정을 찾고 있다. 연휴가 끝나고 어획량이 회복되어, 윤택한 출하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업 정보 서비스 센터가 취합한 5월 중순까지 산지 시세는 전국 평균 1kg 당 약 400엔으로, 580엔대로 평년보다 비교적 고가로 추이되었던 지난 4월보다 3할 하락.
- 초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일본 주변으로 북상하는 가다랑어는 첫 가다랑어라고 불려져, 이 계절 품물시이다. 북상 루트는 오키나와나 야쿠시마(屋久島) 등 난세이제도(南西諸島)와, 오가사하라제도(小笠原諸島)나, 하치조지마(八丈島) 경유가 있음.
- 이번 봄은 난세이제도에서의 어획 부진으로 4월 전국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
- 전국 굴지 어획을 자랑하는 치바현 가즈우라(勝浦)어업협동조합에 의하면 "5월에 들어 크기도 커졌다"고 함.
- 수도권 중견 슈퍼 점포에서는 1마리 4분의 1 토막이 400~500엔으로 전월보다 100엔 저렴함.

(자료 : 일본경제신문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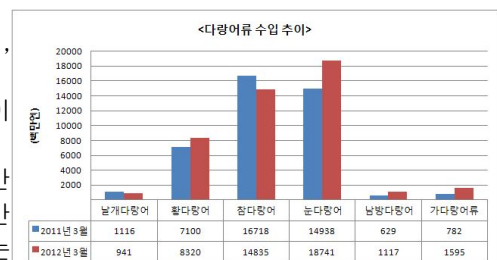
#### ○ 소비동향

##### ☞ 소비 촉진시키는 가격을 모색 필요

- 근해의 황다랑어는 예년 장마의 끝날 무렵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시장관계자는 '최근 2~3년, 냉동다랑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고시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5월부터 근해 다랑어 반입도 예년보다 많고 냉동도 대만어선의 인도양 풍어로 인해 반입이 증가하고 있음.
- 가격을 내리고 재고를 소진하여야 한다. 특히 싼 칠레산 양식 연어에게 시장 주도권을 잃고 있어 수요 진작이 필요함.

#### ○ 수입동향

- 신선, 냉장, 냉동을 합친 황다랑어, 눈다랑어, 남방다랑어, 그리고, 가다랑어류는 전년 대비(누계) 증가 추세를 보임.
- 날개다랑어, 참다랑어는 전년 대비(누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랑어류는 신선·냉장에 있어서는, 눈다랑어가 증가한데 반해 황다랑어는 감소했고, 냉동은 고급 참치가 저조하였지만 대중적인 참치는 전년을 상회하였다. 반면, 손질한 참치는 반감하였음.(일간수산경제 5/1)



- 한국산 참치류는 '12년 3월 5, 617,986천엔으로 전년(6,215,587천엔) 대비 감소. 황다랑어는

613,065천엔으로 전년의 1,021,468천엔보다 크게 하락을 보임.

○ 시사점

- 일본내 다랑어류가 예년보다 고가로 추이되면서, 수요가 연어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관계로 유통 매장에서는 '연어 슬라이스' 등 신 메뉴 제안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있음.(자료 : 일본경제신문: 6/6)
- 다랑어 수요 진작을 위한 일본내 동향을 주시하며, 한국산 수출 대책 강구 필요함.  
(자료 : 수산타임즈 5/28)